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가 유일한 힘입니다**



미국전서 동점골,이탈리아전서 골든골을 터뜨린 안정환 선수의 부인 이해원씨와 장모는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20일간 금식기도를 드린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그녀는 22일 스페인과의 8강전을 앞두고도 안선수와 함께 출석하는 중앙침례교회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 중이었다.

‘ 거미손 ’ 골키퍼 이운재 선수.그의 뒤에도 서울 흥릉교회에 출석하며 기도한 부인 김현주씨와 장모 손분선 권사,장인 김정한 안수집사가 있었다. 경기때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기도해주는 이들이 이 선수로서는 여간 마음 든든한 것이 아니다.

이천수 선수에게도 기도의 응원부대가 만만치 않다.출석하는 인천 간석교회 아동부로부터 장년 성도들까지 항상 기도해주고 있는 것. 조석상 담임목사는 “ 이선수와 수시로 전화하며 기도하고 있으며 침착하게 경기를 치르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다” 며 “ 신앙을 가진 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 고 말했다.

20년째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에 출석하는 유상철 선수의 어머니 이명희 집사는 서울 흥은동 집 근처의 서부제일교회(김강 목사)에서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5시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에 참석,유선수를 위해 기도해온 지가 벌써 2년째.이씨는 설교가 끝나도 항상 남아 30~40분씩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국내외 어느 곳에서 경기를 해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 기도했던 송종국 선수의 어머니 김성자씨도 “ 중국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 며 “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리라 믿는다” 고 말했다.

최태욱 선수의 어머니 김명자씨는 인천감리교회(최영근 목사) 새벽기도회에 참석,지속적으로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영표 선수가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경기 군포영광교회(이상돈 목사)도 한국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시합 30분 전에 본당에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진 뒤 응원하고 있다. 영광교회 청년들은 “ 지금까지 한국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줘 매우 흡족하다” 며 “ 8강전에서도 이영표 형제가 부상없이 제 기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탈리아전에서 멋진 오버헤드킥을 선보였던 차두리 선수 뒤에도 서울 충신교회(박종순 목사) 성도들의 기도는 물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 차범근 감독과 은미 집사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첫별을▶ **신 청 곡**

얼마 전, 차 안에서 방송을 듣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000교회에서 믿음을 이끌어 주시던 0 선교사님과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며 가르쳐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떠나시는 선교사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선교사님 가족에게 드리는 노래를 신청합니다(대충 이런 내용의 멘트후).....  
신청곡은.....김국환의 '타타타'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4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11월 3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라줄의 사랑 노래**



만약 그대를 천명의 사나이가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천명 중에는 나,  
라줄도 끼어 있을꺼요.

만약 그대를 백명의 사나이가 사랑한다면  
그 백명 중에 나,  
라줄도 끼어 있을꺼요.

만약 그대를 열명의 사나이가 사랑한다면  
그 열명 중의 하나는 나,  
라줄일꺼요.

그리고 그대를 사랑하는 사나이가  
단 한 사람뿐이라면  
그가 라줄이라는 걸  
그대는 알꺼요.

그러나, 그대를 사랑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된다면  
그때는 이 라줄이 죽었다는 걸  
그대는 알게 될꺼요.

- 라줄 캄자도프의 《사랑의 노래》 중에서 -

어떤 분은 군대 졸업 시절에 이 시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내 '뽕' 가게 하여 그 여인을 지금의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금은 낮 간지러운 이런 시를 적어 보내는 그런 멋진 연애를 저는 왜 진작 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라도 아내와 남편과 다시 연애 해 봅시다. 좀 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사랑표현은 좀 유치찬란해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엄마가 딸에게**  
치약을 쓴 후  
마개를 꼭 닫아라. 무슨 일이나  
끝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삶의 끝도  
Happy Ending이 되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윗사람에게 무례한 자를  
멀리하라  
이민왔다고 위 아래를 모르면  
하나님도  
아래있는 우리를 모르신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인 도 자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찬송 Hymn 1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4(잠언 3) 인 도 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44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7:11-19 인 도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교 '열명중 단 한명'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58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장현중 장로 가독,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1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3	김교섭	양경배	권용일, 이지영	장현중, 윤주야	김현수, 민광호
10	김종건	윤형권	양경배, 김동숙	사카시다, 최기향	박기원, 박기창
17	이광희	임혜자	이재영, 김경숙	서동완, 유순	박병민, 박상옥
24	정덕수	윤한나	윤형권, 신영화	손승일, 윤한나	박일영, 사카시다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듣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 1. 교우소식

<한국방문> 고국은 쌀쌀한 11월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재영 집사. 지난 토요일 출국. 장인어른의 생신을 함께보낸 후 귀국예정

\*장현중 장로, 윤주야 집사. 3주간 예정으로 한국방문

<축하> 최기향 집사. 마침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취득. 신호등이 대어

섯개뿐인 Fiji에서 운전하시던 여유로움처럼 즐거운 운전되세요.

### 2. 구역예배주간입니다. 한달이 금방 돌아 온다는 느낌을 한달에 한번 갖는 구역예배를 맞으며 느낍니다. <금요일 저녁 7:30>

\*구역장님들의 구역예배 독려로 사랑으로 풍성한 구역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시 간단한 차외에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교회 규칙입니다

### 3. "휴무교인"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합니다(안내문 참고)

4. 정기월례회의(예고): 제1,2남선교회 월례회. 다음주일(10일) 예배후 각각 갖습니다

5. 어제 교회당 청소예 여러 교우들께서 자원봉사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수북히 쌓였던 먼지를 Holy Sepulchre 교우들과 함께 닦고 치웠습니다. 청소후 영양탕으로 즐거움도 나누었습니다. 먼지나는 일 후에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목이 시원한지 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지난 주일 3교회(주님의교회, 임마누엘, 갈보리) 체육대회....

\*깨끗한 경기매너, 뒷마무리 청소까지 자원하여 담당할 갈보리 교우들의 모습은 믿음은 결코 허공속의 관념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를 즐겁게 놀면서 푸짐하게 준비한 음식으로 먹은 하루.. 그래서 '놀구먹는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나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7. 축하인사..

\*오늘 오글랜드내 여러교회에서 창립예배, 새교회당 입당예배를 드리는 흥보를 보았습니다. 친분있는 분에게 드리는 축하전화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창립: 은혜와 진리교회. 구세군 예닮교회 \*새교회당입당: 은누리교회(舊사랑의교회)

8. 수요일예배(출애굽기 성경강해) \*매주 수요일 저녁 7:30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착한 시인>

여 로 -헤르만 헷세-

어느 소녀가 찾아와 나를 물거든

전선으로 떠났다고

전해주오

무슨 말 없었냐고 물거든

고개만 옆으로 저어주오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거든

나도 그랬다고

전해주오

착한 시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시작을 어느 시로 할까 고민하다 김소월의 '눈 오는 저녁'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려 얻어낸 헤르만 헷세의 시로 처음을 시작합니다.

너무 바쁘게 달려온 시간 때문에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다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시가 있으면 딸의 공책을 찢어 황급히 적은 글씨로 적어 건네 주셔도 좋습니다. 예쁘게 하여 추천시로

실겠습니다.